

▶ 달러/원 주간 전망

•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 경상수지 등 주목

서울, 5월8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미국 물가를 비롯해 중국 핵심 경제지표와 국내 경상수지 내용을 살피며 등락할 전망이다.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300-1,340원이다.

4월 내내 달러 약세와 괴리를 보였던 원화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긴축 종료 신호와 외인 배당 역송금 수요 해소 등에 힘입어 지난주 후반에는 강세 보폭을 대거 키웠다.

주말 뉴욕 NDF 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1,310원대 중반까지 추가 하락했다.

이에 환율은 1,340원대에서 단기 상단 저항이 형성된 것으로 보고 상승 탄력이 둔화될 여지가 커졌다.

이런 가운데 달러/원 단기 박스권 하단은 달러 약세 지속 여부와 최근 비디시했던 위안 움직임이 달라질지에 달렸다.

연내 금리 인하 기대를 차단했던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발언이 있는 이후 발표되는 4월 미국 소비자물가지표에 시장은 관심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 사전 조사에서는 4월 CPI 상승률은 0.4%로 지난달 0.1%보다 확대됐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4월 생산자물가 및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도 챙겨 볼 지표다.

또한, 은행권 불안과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 시장 재료로 활용될지 지켜봐야 할 듯하다.

중국은 4월 물가와 수출입 지표를 발표할 예정이다. 중국 경제 회복 정도에 대한 시장 해석과 이로 인한 위안화 반응이 원화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겠다.

한편, 한국은행은 3월 국제수지(잠정)를 발표한다. 올해 1월과 2월 경상수지는 모두 적자였다. 11년 만의 첫 2개월 연속 적자를 보여 외환 수급 불안을 촉발시킨 만큼 3월 경상수지 결과가 그 어느 때보다 주목된다.

외환 수급의 변화 없이 원화 추세 전환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외환시장 펀더멘털의 핵심 지표인 경상수지 결과에 대한 시장 반응을 챙겨봐야 할 듯하다.

(박예나 기자: 편집 유춘식 기자)

((Yena.Park@thomsonreuters.com ; Reuters Messaging: Yena.Park.thomsonreuters.com@reuters.net))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주간 국내외 일정

• 금주 국내 경제 주요 일정

5월8일(월)

- ⊙ 기획재정부: 부총리 대외경제장관회의 (08:00)
- ⊙ KDI: KDI 경제동향(2023. 5) (12:00)
- ⊙ 한국은행: 「CBDC 모의시스템 금융기관 연계실험」결과 (12:00)

5월9일(화)

- ⊙ 기획재정부: 2차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10:00)
- ⊙ 금융감독원: 2023년 4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12:00)
- ⊙ KDI: KDI-세계은행 녹색성장기금, 보고서 발간 기념 공동세미나 개최 (12:00)
- ⊙ 통계청: 2023년 1/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 (12:00)
- ⊙ 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동남아 3개국 금융감독기구 최고위급 예방 및 금감원장 처음으로 해외 IR에 직접 참여하여 투자유치 지원 (12:00)
- ⊙ 기획재정부: 부총리 전기차 산업 현장방문 (13:40)

5월10일(수)

- ⊙ 통계청: 2023년 4월 고용동향 (08:00)
- ⊙ 한국은행: 2023년 3월 국제수지(잠정) (08:00)
- ⊙ 기획재정부: 2023년 4월 고용동향 분석 (09:00)
- ⊙ KDI: KDI 현안분석 '최근 반도체경기 흐름과 거시경제적 영향' (12:00)
- ⊙ 금융위원회: 위원장 조선소 현장방문 및 조선업계 간담회 (13:30)

5월11일(목)

- ⊙ 관세청: 5.1~10일 수출입 현황
- ⊙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5월호) 발간 (10:00)
-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비통방, 10:00)
- ⊙ 한국은행: 2023년 4월중 금융시장 동향 (12:00)
- ⊙ 한국은행: 2023년 4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 (12:00)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23년 4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12:00)
- ⊙ KDI: KDI 경제전망(2023. 상반기) (12:00)
- ⊙ 기획재정부: 1차관 신성장전략 전담팀(TF)회의 (16:00)
- ⊙ 기획재정부: '23.5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 ⊙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17:00)

5월12일(금)

- ⊙ 기획재정부: 1차관 비상경제차관회의 (08:00)
- ⊙ 기획재정부: 2023년 5월 최근 경제동향 (10:00)
- ⊙ 금융위원회: 대환대출 인프라 점검 간담회 (10:00)
- ⊙ 기획재정부: 2차관 챗GPT의 미래경제와 시사점 브라운백 세미나 (11:30)
- ⊙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제3차 릴레이 세미나 (10:00)
- ⊙ 한국은행: 2023년 3월 통화 및 유동성 (12:00)
- ⊙ 기획재정부: 부총리 G7 재무장관회의 (일본 니가타)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서울, 5월8일 (로이터)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날짜	시간	국가	지표	기간	로이터 전망	이전수치
5월8일	09:30	일본	지분은행 서비스업 PMI 최종	4월		54.9
5월8일	17:30	유로존	셴틱스지수	5월	-8.0	-8.7
5월8일	23:00	미국	고용추이	4월		116.24
5월8일	23:00	미국	도매 재고 수정치 MM	3월	0.1%	0.1%
5월9일	08:30	일본	가계지출 YY	3월	0.4%	1.6%
5월9일		중국	수출 YY	4월	8.0%	14.8%
5월9일		중국	수입 YY	4월	0.0%	-1.4%
5월9일	19:00	미국	NFIB 기업낙관지수	4월		90.10
5월10일	08:50	일본	외환보유고	4월		1,257.1B
5월10일	14:00	일본	경기동행지수	3월		2.8
5월10일	14:00	일본	경기선행지수	3월		1.3
5월10일	20:00	미국	모기지마켓지수	5월5일 주간		214.4
5월10일	21:30	미국	CPI YY	4월	5.0%	5.0%
5월10~17일		중국	총통화(M2) 공급 증가율	4월		12.7%
5월10~17일		중국	신규 위안화 대출	4월		3,890.0B
5월10~17일		중국	FDI (YTD)	4월		4.90%
5월11일	03:00	미국	연방예산	4월		-378.00B
5월11일	08:50	일본	은행 대출 YY	4월		3.0%
5월11일	08:50	일본	경상수지 NSA JPY	3월	2,947.3B	2,197.2B
5월11일	10:30	중국	PPI YY	4월		-2.5%
5월11일	10:30	중국	CPI YY	4월		0.7%
5월11일	21:30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5월6일 주간	245k	242k
5월11일	21:30	미국	PPI YY	4월	2.5%	2.7%
5월12일	21:30	미국	수입물가 MM	4월	0.3%	-0.6%
5월12일	21:30	미국	수출물가 MM	4월	0.3%	-0.3%
5월12일	23:00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잠정치	5월	63.0	63.5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괄호 안은 한국시간)

5월8일(월)

-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 야후파이낸스 생방송 출연 (9일 오전 0시)
-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 총재,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 주최 행사 패널토론 주제 (9일 오전 5시45분)

5월9일(화)

- 필립 제퍼슨 연준 이사, 애틀랜타학회 화상행사 참석 (오후 9시30분)
-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 뉴욕경제클럽 오찬행사서 기조 연설 (10일 오전 1시5분)

5월11일(목)

- 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장 회의 (13일까지)
- 일본은행 4월27-28일 통화정책회의 의사록 공개 (오전 8시50분)
- 영란은행 금리 결정 및 통화정책 보고서 발표 (오후 8시)
-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스페인 중앙은행 주최 컨퍼런스서 연설 (오후 11시15분)

5월12일(금)

-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 서던캘리포니아대 공공정책대학원 학위수여식 축사 (13일 오전 3시20분)
- 제임스 볼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필립 제퍼슨 연준 이사, 스탠포드대 후버연구소 통화정책 컨퍼런스 참석 (13일 오전 8시45분)

▶ 금주 세계 5대 이슈

○ 미국 4월 CPI

오는 10일 발표될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날 경우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중단 전망은 강화될 것이다.

연준은 지난주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상했으나, 향후 중단 가능성을 시사했다.

로이터 사전 조사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은 4월 CPI 상승률을 0.4%로 추정했다. 예상보다 급격한 둔화는 연내 금리 인하 전망을 강화해 리스크 자산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

반면 예상보다 높은 수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부추겨 리스크 자산에 타격을 줄 것이다.

○ 중국 수출입, CPI, PPI

오는 9일 발표될 중국 4월 수출 증가율은 전년비 8.0%로 3월의 14.8%보다 낮아졌을 것으로 로이터 조사에서 추정됐다.

3월 1.4% 감소했던 수입은 4월 보험세를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11일에는 중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가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 3월 CPI 상승률은 전년비 0.7%로 둔화됐고, PPI 하락률도 2.5%로 심화된 바 있다.

⊙ 영국 GDP

오는 12일 발표될 영국 3월 GDP는 전월비 포함, 전년비 0.4%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보다 하루 앞서 11일에는 영란은행 정책회의가 예정돼 있다.

로이터 사전 조사에 참여한 이코노미스트 61명 중 33명은 영란은행이 기준금리를 4.50%로 25bp 인상할 것으로 전망했고, 28명은 동결을 예상했다.

시장은 25bp 인상 가능성을 70% 이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금리가 5%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5월에 팔아라?

주식시장에는 '5월에 팔아라(Sell in May)'라는 격언이 있다.

로이터 계산에 따르면 지난 50년간 S&P500지수는 11월과 4월 사이 평균 4.8% 상승했고, 5월과 10월 사이 상승률은 1.2%에 그쳤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통계를 보면, 11월~4월 상승률과 5월~10월 상승률 사이 격차는 1%에 불과하고,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11~4월 상승률이 5~10월 상승률보다 오히려 1%포인트 낮다.

금주 미국 CPI(10일), PPI(11일),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12일) 결과와 그에 따른 연준 정책 전망에 따라 주가지수가 영향을 받을 것이다.

⊙ G7 재무장관회의

오는 11일~13일에 일본 니가타에서는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열린다.

이번 회의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초청을 받아 참석한다.

각국 대표들은 신흥시장 부채 부담 증가, 세계 인플레이션 및 공급망 문제, 미국 은행권 위기 여파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지난주 로이터 한글 뉴스 서비스 주요 기사

• (단독)-BCBS, 韓 은행 유동성비율 규제 완화 지속에 문제 제기... 금융당국, LCR 등 관리 당 부

5월2일 (로이터) 임승규 기자 -

최근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BCBS) 내부에서 한국의 은행 유동성 규제 완화 장기화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지면서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등의 자체 관리 주문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BCBS의 문제 제기는 오는 6월 이후 공식 발표될 향후 LCR 규제 완화 등의 정상화 일정과 관련해 변수가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4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전반의 충격 완화를 위해 은행권의 통합 LCR 비율을 100%에서 85%로 완화했고 당초 2021년 3월로 예정했던 LCR 규제 완화 만료 시기를 수 차례 연기했다.

결국 85% 수준까지 낮췄던 은행 통합 LCR 비율은 지난해 7월부터 90%로 상향 조정했고 10월부터 92.5%로 추가로 높였다. 금융당국은 당초 올해 1분기까지 LCR 비율을 95%로 올린 후 2분기 97.5%, 3분기 100%까지 정상화시킨다는 로드맵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레고랜드발 크레딧시장 자금경색이 나타나면서 LCR 비율 규제 정상화 시점을 올해 2분기까지 연장했고 은행 예대율을 100%에서 105%로 완화했다. 예대율 규제 완화는 지난 3월 한 차례 연장돼 오는 6월 만료될 예정이다.

당초 시장에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은행 건전성 규제 정상화 시점을 내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다.

국제결제은행(BIS)의 은행건전성 규제기준인 '바젤III'의 유동성 비율 기준서는 회원국 금융당국은 재량적 판단으로 규제 완화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2020년 코로나 사태 당시 대부분의 국가들이 은행 유동성 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위기 관리에 나섰다.

다만 지난 3월 이후 실리콘밸리은행(SVB) 등 미국 중소은행들이 연쇄파산하고 크레딧스위스(CS)가 UBS에 전격 인수되며 글로벌 은행 불안이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각국의 유동성 규제 강화에 대한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BCBS의 공식 의견은 아니고 회원국 중 한 곳이 우리 유동성 규제를 가급적이면 글로벌 기준에 맞춰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감독당국끼리 서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해외에서 이런 이슈가 있으니 은행들에 주의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앞으로 감독규제 방향도 유동성 쪽에서 정비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S&P 등 국제 신용평가사 역시 국내 은행들에 대한 건전성 규제 완화 지속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 금융당국 입장에서 향후 정상화 로드맵 발표 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국내은행의 한 관계자는 "최근 S&P가 국내은행들에 대한 연례평가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건전성 규제

완화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S&P가 금융당국과도 일정 부분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편집 박예나 기자)

((seunggyu.lim@thomsonreuters.com ; +822 6936 1466;))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달러/원 월간 전망 ①)-수급·지정학적 우려 등 원화 약세 요인 겹겹이... 연준 피벗 변수

5월2일 (로이터) 박예나 · 문윤아 기자 -

달러/원 환율은 5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정책 스탠스, 국내 무역수지 추이,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주목하며 변동성 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로이터통신이 외환시장 전문가 1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5월 환율 예상 범위(평균)는 1,300.0-1,359.7원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이 제시한 월간 전망치를 보면 달러/원 예상 거래 범위는 약 60원으로 넓게 제시됐다. 그만큼 5월 환율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국내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한-중 갈등 등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되며, 미국 부채한도 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부상하는 등 현재 원화 강세 요인을 찾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리오프닝 효과 지연에 따른 위안 약세도 원화 약세를 부추기고 있어 달러/원 환율 상방 압력은 쉽게 잦아들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환율이 연고점 부근에 머무는 데 따른 레벨 부담과 당국 경계감은 상승 속도를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배당 시즌 종료에 따른 외국인 역송금 부담도 점차 완화될 전망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도비시한 입장을 보일 경우 원화 약세가 급격하게 되돌려질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전문가별 코멘트

기관명	설문참가자	예상환율 범위	
신한은행	김장욱 팀장	1,320	1,360
우리은행	박범석 과장	1,300	1,360
하나은행	고규연 팀장	1,315	1,370
DGB대구은행	이응주 차장	1,305	1,370
IBK기업은행	임기묵 차장	1,300	1,360
KDB산업은행	류홍 대리	1,300	1,360
NH농협은행	배유리 차장	1,270	1,360
현대차증권	오창섭 연구원	1,300	1,350
키움증권	김유미 연구원	1,325	1,350
신한투자증권	하건형 연구원	1,300	1,360
DB금융투자	문홍철 파트장	1,295	1,356
NH투자증권	권아민 연구원	1,270	1,360
평균		1,300.0	1,359.7

((younah.moon@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주간 국내 · 국제 금융시장 변동폭

- 외환: 원화 역내 +1.13%, 유로화 -0.03%, 엔화 +1.08%, 위안화 역내 +0.30%, 달러지수 -0.36%
- 국내 주가: 코스피 -0.02%, 코스닥 +0.26%
- 미국 주가: 다우존스 -1.24%, 나스닥 +0.07%, S&P500 -0.80%, 러셀2000 -0.51%
- 국내 국고채(레피니티브 호가): 3년 -8.1 bps, 10년 -7.5 bps, 최종 3/10년 스프레드 +7.2 bps
- 미국 국채: 2년 -14.2 bps, 10년 -0.6 bps, 최종 2/10년 스프레드 -47.6 bps
- 원자재: 원유 선물(WTI) -7.09%, 금 선물 +1.35%, 레피니티브/코어커머리티CRB지수 -2.35%